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나눔 실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6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꽃동네재단을 방문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황병구 회장 및 박기홍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롯데면세점, 장애인 운동선수 5명 직접 고용

롯데면세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탁구 2명, 수영 2명, 배드민턴 1명 등 총 5명과 채용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일 임석원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부장(사진 우측 첫 번째)과 김관용 갤럭시시아에스엠 이사(좌측 첫 번째) 및 장애인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롯데면세점



애경산업, 어린이날 맞아 보육시설에 인형 전달

애경산업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육시설 '꿈나무를 파란꿈터'에 임직원이 직접 만든 애착인형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애착인형은 총 62개가 제작됐다. /애경산업



이대서울병원, 서울고등법원과 '의료감정'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사회의실에서 '이대서울병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의료감정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다. 사진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이대서울병원



기보, K-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

기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로슈, 바젤투자청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정영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E zat Azem 한국로슈 대표, 박주선 기보 전무, 오봉근 바젤투자청 한국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SKT, 지속가능경영 '롱런'... DJ 지수 17년째 편입

다우존스 ESG 경영 판단 지표 기후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영향

SK텔레콤은 2026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에 편입했다고 6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C)는 글로벌 금융정보제공기관 S&P가 매년 발표하는 ESG 경영 판단 지표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의 산업별 상위 10%만 최고 등급을 받는다. SK텔레콤은 2008

년부터 17년 연속 해당 지수에 편입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급망 ESG 프로그램 고도화 ▲기후 거버넌스 체계 정비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이 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출석률 권고 기준인 75% 이상을 충족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을 제한하는 등의 결 기구의 혁신을 지속한다. 또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인 ESG 리스크를 심층 진단하고, 협력

사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인 '2025 넷 제로' 전략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포함한 배출량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을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과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박종길 “산재신청 문턱 낮추는게 핵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산재노동자 헌신을 기린다. 특히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6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민의 시각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나만의 롯데리아 디자인 도전하세요”

유니클로 협업 공모전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와 손잡고 '나만의 롯데리아' UTme!(유티미)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니클로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UTme!'에 고객이 직접 롯데리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더하는 참여형 콘텐

츠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UNIQUE(유니크)'와 'FUN(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참여 방법은 롯데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트리에서 참가 신청서와 디자인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티셔츠나 토트백 시안을 제작하면 된다. 이후 개인 SNS에 완성된 디자인을 필수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고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진공, 직원 주도 AI 혁신 나선다

‘사내 AX 챌린지’ 10개 팀 선정 11월 중 4건 최종 우수 사례 포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업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내 인공지능 전환(AI)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했다.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돌입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사내 인공지능 전환(AI) 챌린지'는 임직원이 업무상 비효율 요인을 발굴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내부 혁신 경진 대회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도 실무자가 직접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김혜정

◆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 △정윤순 전(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현대차, 글로벌 바다숲 프로젝트 가동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 주목받지 못한 바다숲에 이름 부여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바다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바다식목일'에 앞서 공개된 이번 캠페인은 그간 육지숲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던 바다숲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울창하게 번성해 형성된 생태 공간으로, 탄소 흡수 잠재력은 물론 수산자원 증진,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중요한 해양생태계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 당 연간 약 33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와 해

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울산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 두 곳 가운데 동구 주전동 지역에 위치한 한 곳에 '울림(Ullim) 바다숲'이라는 지명을 부여하고, 해당 명칭을 국내 지도 플랫폼인 '카카오맵'에 올렸다.

이는 바다숲이 주요 지도 서비스에 이름과 위치로 표기된 첫 사례로, '울림'이라는 이름은 '울산의 새로운 숲(蔚林)'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 보전을 향해 바다숲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현대차의 캠페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다. 현대차는 바다숲 보전 선도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바다숲에 현지 해양 NGO 및 주민 단체와 협업해 'Auken Aiken(아우켄아이켄)'이라는 지명을 부여했으며, 호주에서도 현지 해양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와 바다숲 후보 명칭을 선정한 뒤 글로벌 투표를 통해 최종이름을 'Yanggaa(양가)'로 선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GC 오픈 하우스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GC녹십자그룹

GC녹십자, 가족 초청 '오픈하우스' 성료

전체 계열사 5100여 명 참여

GC녹십자그룹이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본사 목암타운, 충북 오창공장, 전남 화순공장 등에서 '오픈 하우스'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오픈 하우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룹 내 전체 계열사 임직원 가족 5100여 명을 초청했다.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을 선사하고, 회사에 대해 알리는 등 임직원 사기를 높였다.

이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GC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나의 영웅'을 주제로 진행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멋진 모습'을 표현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부모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목암타운, 오창공장, 화순공장에서 각각 시상식을 가져 우수상, 아차상 등 다양한 상과 기념품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댄스 배틀, 세리머니 제창 등 임직원과 가족들이 활발하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 어린이 창작 뮤지컬, 명랑운동회 등도 운영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